

산간의 일교차를 이용한 '횡성한우축제'

이인재

경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끊임없이 새로운 축제가 생기고 없어지는 와중에 매해 전국적으로 1,000여 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축제를 따라 여행하다 보면 축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 막 시작했지만 유망한 횡성한우축제의 참맛을 느껴본다.

한우, 한국소

백과사전의 의미를 빌리면, 한우는 소의 한 품종으로 '한국소'를 지칭하는 말이다. 한우의 몸빛은 붉은 갈색이며 체질이 강건하다. 몸높이에 비해 네 다리과 몸길이가 길고 앞가슴이 비교적 발달하여 일하는 데 적합한 큰 체형을 갖고 있다.

한우는 우리에게 무척 친숙한 동물이다. 예로부터 몸이 민첩하고 성질이 온순하여 농경 등에 역우(役牛)로 많이 이용되었고, 전장에서는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데 사용되었다. 최근 농업이 기계화되고 소고기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육우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 한우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원기를 북돋아주는 보양식으로 널리 애용되어왔다. 특히 다른 나라 소고기에 비해 육질이 우수해 단백질 함량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찍이 일본에서도 “한우는 지방 침착이 좋고, 일본 재래종보다 큰 데다 육질도 섬세하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마블링과 도체율 또한 우수하다(‘고베 우육 시장에 나타난 한우’ 중)”라고 기술한 바 있다.

횡성의 낮과 밤

한우를 사육하려면 일교차가 뚜렷한 산간 지방이면서도 논농사가 발달해 벼짚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강원도 횡성이다. 횡성은 오래전부터 한우의 고장으로 이름나, 횡성 우시장은 전국 4대 우시장 중 하나로 손꼽혀왔다.

10월 중순쯤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둔내IC를 거쳐 횡성 읍내를 지나면 섬강 둔치에서 열리는 횡성한우축제를 즐길 수 있다. 원래 횡성한우축제는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어오던 ‘횡성태풍문화제’의 명칭을 변경해 2004년부터 한우라는 주제를 가지

고 개최하는 축제이다. 2008년까지 5회나 열렸는데 올해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유망 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신종 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다.

횡성한우축제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출처: www.hshanu.or.kr)

횡성한우축제는 다른 지역의 축제와 비슷하다. 축제장 입구에 들어서면 어느 축제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풍경이 펼쳐진다. 섬강 둔치를 가득 메운 하얀 몽골 텐트를 바라보면 약간의 실망감이 밀려온다. 콘서트, 난타, 팝스 오케스트라, 세계 민속 공연, 타악 공연, 비보이 공연, 세계 악기 여행 등 다양한 공연과 한우 주제관, 더덕 주제관, 곤충 생태 체험관, 외국

자치단체 홍보관의 전시물, 유명 사진작가 특별전 등은 방문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즐거움은 다른 축제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 한우축제의 정체성을 높여줄 수 있는, 한우를 주제로 한 공연이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도 잠시, 이곳저곳을 방문하다 보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바로 다양한 먹을거리 때문이다. 횡성한우축제에는 그동안 비싼 가격 탓에 선뜻 사 먹기 어려웠던 한우를 취향에 따라, 주머니 사정에 따라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2008년의 경우만 살펴보아도 등심, 안심, 특수 부위 등 1등급 이상의 소고기를 판매하는 ‘고급 횡성한우 전문점’, 역대 한우축제 요리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요리 전문가들이 직접 요리를 만드는 ‘한우·더덕 요리 전문점’, 스테이크와 와인을 곁들일 수 있는 낭만적인 식당인 ‘한우 스테이크와 와인의 만남’, 횡성한우를 부위별로 맛볼 수 있는 ‘횡성한우 요리 식당’, 가격이 저렴한 ‘횡성한우 바비큐점’, 싱싱한 횡성한우를 즉석에서 요리해 만든 도시락, 햄버거, 꼬치 요리를 파는 ‘즉석요리 판매점’ 등을 비롯해 등심과 불고기를 하루 두 차례 무료로 나누어주는 ‘한우 고기 시식 코너’ 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먹을거리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

이 밖에도 횡성한우축제에서는 웬만한 인삼보다 낫다는 더덕, 김이 모락모락 나고 쫄깃쫄깃한 안흥찐빵, 복분자 와인, 인삼, 벌꿀 등 횡성 지역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직접 만들고, 시식하고, 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먹을거리가 풍부한 횡성한우축제의 특징은 통계 수치로도 알 수 있다. 2008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문객 1인당 평균 7만3,700원을 지출했고, 이 중 식음료비와 쇼핑비로 각각 32.5%, 31.7%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비용의 3분의 2가량을 한우 관련 상품을 먹고 사는 데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먹을거리 이외에도 횡성한우축제에는 한우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마련되어 있어 자칫 지루해하기 쉬운 어린이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물론 해마다 약

간의 차이는 있지만, 섬강을 따라 축제장을 한참 내려가다 보면 외양간·농경문화 체험, 소 밭 같이 체험, 송아지 우리 넣기 체험, 코뚜레·명예·짚풀 공예 체험, 우마차 여행, 작은 한우 목장 체험, 미니 한우 경주 대회, 인간 소싸움 대회, 송아지 경매 시장, 횡성한우 뗏목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한우, 백로 그리고 하늘

만약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축제장 인근에 있는 횡성의 명소를 찾아보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함평이 나비로 청정한 이미지를 널리 알렸다면, 횡성에서는 '한우'와 '백로' 그리고 '하늘'이 청정함을 대변한다. 여름 철새인 백로는 참새나 까치에 비해 환경 적응력이 높지 않아 서식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횡성에 백로가 흔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곳이 청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오염 물질 발생 요인이 적어 횡성의 하늘과 땅은 늘 청정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밤하늘이 청명해, 밤하늘을 관찰할 수 있는 천문대도 우리별천문대(www.ourstar.net)와 천문인마을(www.astrovil.co.kr) 등 두 곳이나 있다. 천문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천문 캠프 등 다양한 관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또 천문 교육, 천체 체험, 망원경 관측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정은 당일 치기, 1박 2일, 2박 3일과 같이 다양하니 하룻밤쯤 머물며 하늘 속에 있는 나만의 별을 찾아보는 것도 매우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듯하다.

한우는 횡성의 효자



(출처: www.hshanu.or.kr)

한우는 지역 경제를 살린 일등 공신이다. 도시화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횡성은 관광객들이 증가해 관련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고, 점차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 횡성군의 인구는 2007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1995년부터 시작한 횡성한우 명품화 산업, 1997년의 횡성한우 브랜드 출범, 2005년부터 개최된 횡성한우축제 등과 같이 횡성을 대한민국 한우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이다.

지난해 열린 횡성한우축제에는 5일 동안 58만여 명이 방문하여 일일 평균 대략 12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횡성군의 인구가 4만3,566명임을 감안하면 인구의 2배가 넘는 관광객들이 매일 횡성군을 찾은 셈이다. 횡성군에 따르면, 축제가 가져다준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 유입 금액 만367억여 원, 생산·고용 유발 효과까지 감안하면 총 525억여 원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황성의 효자인 셈이다.

축제는 누구나 하나가 되는 만남의 장이다. 축제를 주최하는 사람이나 축제를 즐기는 사람이나 한곳에서 만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마당인 것이다.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함께 나누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황성이 한우를 생산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타고났다면, 이를 이용해 지역 발전의 초석으로 삼은 것은 황성 군민의 노력이고 지혜이다.

이제는 한우 대신 ‘청정’이라는 이미지를 팔아보면 어떨까? 한우, 찌뽕, 백로, 천문대 등이 질적인 듯이 보이는 서로 다른 요소 사이의 공통점을 잘 활용해 이제는 황성을 청정 지역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호주 하면 소고기를 떠올리기보다 청정을 떠올리듯 황성 하면 청정을 떠올리게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황성은 진정한 신뢰라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황성한우축제의 내용도 다양한 먹을거리, 농가 체험과 더불어 ‘청정 속에서 자라나는 한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황성한우의 장점을 홍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방문객도 황성한우축제에서 청정한 보물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듯하다.